

추석에도 화학공장 화재사고 속출

추석 연휴에도 각종 화학공장의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.

9월23일 오전 5시43분경 전북 정읍시 영파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불이 나 종이와 집기 등을 태워 1500만원 상당(소방서 추산)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30분여만에 진화됐다.

또 9월26일 오후 2시51분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폐기물 처리기업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꺼졌다.

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폐기물처리장 1동과 내부에 보관 중인 폐걸래,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2400여톤을 태웠다.

경찰은 “기름 묻은 폐걸래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길의 옮겨 붙으며 확산됐다”는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9/20>